

〈續美人曲〉의 眞面目

양희찬

<차례>

1. 풀이 방법
2. 作品 보기
3. 現場 · 時刻
4. '이내 사설'의 시간적 짜임새
5. 構想과 文脈
6. 表現의 凝集性 및 두 話者의 性格
7. 맺음말

1. 풀이 방법

鄭澈(1536-1593)의 〈續美人曲〉¹⁾은 조선시대의 평가들 그대로 〈思美人曲〉과 〈關東別曲〉과 더불어 지금도 여전히 걸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평들에서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현재의 가지가지 고찰에서도 그 正鵠을 밝혀내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 전북대학교

1) 『松江歌辭』(李選本, 木板), 임기중 편, 『歷代歌辭文學全集』 제2권, 아세아문화사, 1987, 581-584쪽.

이 논문은 〈속미인곡〉의 眞面目을,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짜임새를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이 작품의 짜임새는 작자가 作意를 효과적으로 形象化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품을 엮어 짠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풀기를 끝낼 때까지 눈으로 더듬기만 하는 迷路 狀態에 있을 따름이다. 이 미로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엮어 짠 의도의 심층을 차근차근 훑어나가면서 풀이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시내의 깊고 얇은 데를 가려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 풀이의 시작은 작중 두 화자의 대화 내용에 담긴 時間들을 찾는 데에서 할 것이다. 이로써 두 화자의 대화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들의 진행을 정돈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 내용들에서 문맥 및 구절들의 관계를 의미와 기능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살펴 따져보면, 화자들의 속생각과 성격, 곧 작자의 창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이 분석의 결과로써, 예전의 평들을 부연할 수 있거나 기존 연구의 결과들에 대하여 직접 대조 없이도 비교하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다.²⁾

2) 기존 연구 결과를 직접 다루지 않는 까닭은, 부분적으로 같거나 흡사한 결과가 없는 않지만, 대체로 이 논문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며, 이 논문의 논술에 치중하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나온 몇 편에서도 여러 방법의 적용 및 개별적 관점의 개선은 있었어도 진전된 양상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 사례를 들면, 용의 심리 학이론을 방법으로 적용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논문(이유진, 2007.)이다. 이 논문에서의 문제는 작품 내용을 분석방법에 기계적으로 맞춘 결과로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엉뚱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꿈에 임을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화자가 임의 소식도 알고 싶어 하는 심리까지 포함하여 '꿈에 나타난 임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아들에 가깝다. ...그녀는 모성적 사랑의 힘으로 임을 둘러싼 어둠을 물리치고자 한다.'(158쪽)나 '긋은비'를 중심으로 한 대화 부분에 대하여 '마리아(영적인 모성)가 빛을 발하는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던 헬레네(성적 에로스)가 한 마디 던지고 있는 것'(159쪽) 같은 설명은 君臣의 관계, 화자(작자)의 현실적 역할과 상황, 작중 두 화자의 성격을 작품 내용에서가 아니라 분석방법으로 결정해버리고 마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마무리하면, 작자들이 구상을 하는 동안이나 그 후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 열개 및 표현의 變形生成을 거듭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적 형상화를 위해서이다. 이에는 아주 유기적이고 응집력 있는 짜임의 논리가 사용된다. 이 논리는 바로 작품들에 內藏된, 미로 형성의 원리, 미로 통과와 이정표이다.

2. 作品 보기

여기 옮긴 작품 원형에 기호 표지를 붙여 작품 내용을 크고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보인 까닭은 문맥을 쉽게 파악하고 문맥에서의 상호 의미관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이다. 이 분별은 다음의 작품 분석에 사용될 것이며, 이 작품 분석의 결과를 담은 것이다.

I

-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홀 더이고
- ㉡天堦上 상 白碧玉 옥京경을 엇디호야 離離別別호고
- ㉢히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는고

II

- ㉠어와 네여이고
- ㉡㉠이내 스설 드러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훈가마는
 - ㉣a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a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 하니
 - ㉨a내 몸의 지은 죄 되㉩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 ㉢설워 플터 헤니 造物物의 타시로다

III

글란 싱각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IV-A

- ㉠㉠님을 피서 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 ㉡a물 ㉢툰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 ㉣春춘寒한 ㅁ고熱열은 엇디호야 디내시며 秋秋日일 冬冬天天은 뒤 라서 피섯는고
 - ㉤粥粥早조飯飯 朝朝夕夕씩피 네와 ㉥티 세시는가
 -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는고
- ㉡㉠님다히 消消息식을 아브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 이나 사름 올라
 - ㉤a내 ㅁ음 둘 더 엇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IV-B

- ㉠㉠a잡거니 밀거니 높픈 피히 올라가니
 - ㉡a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 ㉣a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a咫咫尺척을 모르 거든 千천里리를 바라보랴
 - ㉥a출하리 물㉦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b람이야 물결이야 어똥 정 된 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는고
 - ㉩a江강天天의 혼자 서서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消息식이 더욱 아득호 더이고
- ㉡a茅모簷첨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半半壁벽 靑靑燈燈은 늘 위호야 불갓는고
 -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뎡 力力盡진호야 ㅁ츠음을 잠간 드니
 - ㉥情情誠誠이 지극호야 ㅁ의 님을 보니 ㉦玉玉 ㉧툰 열구리 半半이나 마 늘거세라
 - ㉨ㅁ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ㅁ자 하니
 - ㉩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 호며 ㉪情정을 못 다호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 ㉫오던된 鷄계聲聲의 잠은 엇디 씨똥뎡고

㉑어와 虛허事스르다 이 님이 어디 간고

①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바라보니 ㉒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 이로다

V

㉓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³⁾

㉔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는 되쇼셔

3. 現場 · 時刻

I ㉕테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 더이고. ㉖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II ①어와 네여이고. ②㉗이내 스설 드러보오

IVA②㉘a님다히 소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㉙오늘도 거의로다 ㉚니일이나 사름 올라 ㉛a내 므음 둘 디 업다 ㉜어드러로 가쟝 말고

V ㉕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㉔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I 과 II①의 내용은 작중 두 화자의 만남과 그 시각과 그 장소를 알려준다. 이 대화는 두 화자가 길을 가다가 만나 건네는 인사와 응대 및 그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I㉕의 ‘저기 가는’과 ‘본 듯도 하다’와 II①의 ‘아, 너구나’는 I㉖의 ‘해 다 저 저문 날’과 어울려 길 가는 도중에 두 화자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난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이 시각은, 두 화자가 길을 마주 가면서 서로 건너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진, ‘저기’에 담긴 거리감에서 아직 석양빛이 남아 있는 이른 저녁 무렵임을 알 수 있다. 그 장소는 각각 어디로 가던 도중의 길 어느 곳이다.

IVA②㉘b의 ‘오늘도 거의로다’에서 이른 저녁 시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IVA는 II②㉗의 ‘이내 사설’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임의 소식을 애타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IVA②㉘a아므려나 아자 하니 / IVA②㉘c너일이나 사름 올라)과 그 소식을 알 수 없어 아주 안타까워하는 마음(IVA②㉘a내 므음 둘 디 업다)을 담고 있다. 이 간절한 마음은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시각을 매개로 애절한 심리(IVA②㉘b어드러로 가쟝 말고-어디로 가야 그 소식을 알 수 있단 말인가)로 변한다. 이 사설은 화자가 상대 화자를 만난 현장에서 그 상대 화자에게 독백하듯 토로하는 속마음이다. 이 속마음이 다시 V㉕의 ‘죽어 녀으므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의도’에서 그 간절하고 애절함은 더할 수 없이 극대화되고, 상대 화자는 V㉔의 말로 위로한다.

이 인용 부분은 두 화자가 이른 저녁 시간 ‘현재’에 길 ‘현장’에서 만나 나누는 대화이다. 여기서 확인한 작중 시각과 장소가 이 작품의 작중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결정되면, 이 인용 부분은 이 작품의, 내용과 문맥의 핵심으로 인정될 것이다.

4. ‘이내 사설’의 시간적 짜임새

II②㉗의 ‘이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부분은 다른 화자의 말인 III과, IVA②의 현재 시각이 각각의 경계표지가 되어 분별된다. 곧, II②㉘-㉙, IVA, IVB 세 부분으로 나뉜다.

3) 『松江歌辭』 星州本(木板 : 같은 책, 571-576쪽.)에는 V㉕ 부분이 없다. 이와 같은 사본들이 있다. 이후 본문에 작품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 원문 이해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문의 한자를 빼고 인용한다.

II②㉞이내 스설 드러보오.

㉞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귀암죽후가마는 ㉞㉞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㉞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㉞㉞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듯편디 ㉞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시고 ㉞누어 생각후고 니러 안
자 헤여 하니 ㉞㉞내 몸의 지은 죄 죄기티 빠혀시니 ㉞하늘허라 원망후며
사름이라 허물후라 ㉞설워 플터 헤니 조물의 타시로다

III 글란 생각마오. 띠친 일이 이셔이다

IVA①㉞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㉞㉞를 ㉞튼 얼굴이 편후실 적 몇 날일고 ㉞출한 고열은 었디후야 디내
시며 추일 동턴은 뒤라셔 되섯는고 ㉞죽조반 도석피 네와 ㉞기티 세시는가
㉞기나긴 밤의 좁은 었디 자시는고

㉞㉞㉞님다히 쇼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㉞오늘도 거의로다 ㉞니일이나
사름 올라 ㉞㉞내 마음 둘 디 업다 ㉞어드러로 가쟝 말고

IVB①㉞㉞잡거니 밀거니 뉘픈 피히 올라가니 ㉞㉞구름은쿠니와 ㉞안개
는 므스일고 ㉞㉞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었디 보며 ㉞디척을 모르거든 천
리를 바라보랴 ㉞㉞출하리 물기 가 비길허나 보랴 하니 ㉞버람이야 물결
이야 어둥정 된 더이고 ㉞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터는고 ㉞㉞강턴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㉞님다히 쇼식이 더욱 아득후 더이고

㉞㉞㉞모침 춘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㉞반벽 청등은 놀 위후야 불갓는고
㉞오르며 누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㉞저근덧 녀진후야 풋증을 잠간 드니 ㉞
정성이 지극후야 꿈의 님을 보니 ㉞옥 ㉞튼 얼구리 반이나마 늘거세랴 ㉞
마음의 머근 말습 슬크장 숲자 하니 ㉞눈물이 바라나니 말습인들 어이 후
며 ㉞정을 못 다후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㉞오던된 계성의 좁은 었디 씨듯
던고 ㉞어와 허스로다 이 님이 어더 간고 ㉞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바
라보니 ㉞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II②㉞㉞은 임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임에게서 見斥을 받게 된 사연을 담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 화자의 말 III은 ‘이내 사설’의 화자가 ‘자신의
죄 탓’(II②㉞㉞)이며 ‘조물주가 이미 정해 놓은 까닭’(II②㉞㉞)이라고 자책

하는 숙명적 인식을 달래고(글란 생각마오), 엉뚱하게 생긴 일 때문일 것
(띠친 일이 이셔이다)이라고 위로하는 내용이다.

III에 이어 토로되는 IVA의 내용은 ①과 ② 사이의 긴밀한 연결로 한 묶음
이 된다. 즉, ㉞㉞㉞의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는, 임의
소식’⁴⁾이란 ㉞㉞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두 대목이 분리가 된다면, 그
‘임의 소식’의 實相이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이 두 대목이 결합하여 ‘임의
소식’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확인됨으로써 ‘이내 사설’을 토로하는 화자의
갈등심리가 문맥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된다.

이 IVA의 갈등심리는 IVB로 이어 넘겨져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내
사설’을 하는 화자가 상대 화자를 만난 현장에서 ‘어디에 가야 임 소식을
알 수 있단 말인가’(IVA②㉞㉞)라고 토로하는 번민에 이어 IVB가 놓여 있
다. IVB는 ①②두 토막으로 나뉘는데, ①에서 화자가 낮에 한 일을 말하고
②㉞에서 歸家를 말함으로써 이 ①②는 낮과 밤의 행위로 분별되고, 하루에
연속된 일과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이 두 부분은 한 묶음이 된다. ①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하였던’ 낮 시간의 행위를, ②는 귀가 후의 밤
시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심리적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두 화자가 만난 시각은 ‘이른 저녁 무렵’이다. 이 시각과 IVB②의 ‘밤’ 시간
이 순조롭게 연결되지 않고, IVB의 ①도 ②와 연속된 하루 일과이므로 두
화자가 만난 시각과의 연결이 순조롭지 않다. 두 화자의 만남과 IVB의 내용
사이에서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까닭은 IVB의 내용에 두 화자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IVB의 ①에도 ②에도 ‘이내 사설’의 화자 혼자만
있다. IVB의 행위가 과거의 행위인데도 현재 시제로 묘사된 것이 이 분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행위의 시간성을 이로써 분별하면 문맥에
서의 혼란은 해결된다. 그러므로 IVB의 ①②는 ‘이내 사설’에 포함된 내용이

4) “님다히 소식”은 임이 직접 화자에게 보내는 소식이 아니라, 임이 계신 쪽에서 오
는, 임에 관한 소식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작품 내용과 어울린다.

라고 결론된다. 곧, IVB는 ‘이내 사설’의 화자가 임의 곁을 떠난 날부터 거듭 계속해온 일과임을 뜻한다.

두 화자가 만난 이 날도 ‘이내 사설’의 화자가 IVB①의 행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상대 화자를 만난 것이다. 귀가하여서는 또 ②의 행위가 이어질 것은 뻔하다. 그리고 이 IVB의 다음에는 두 화자가 만난 현장에서의 대화 부분 V가 놓여 있다. 작중 현장에서의 현재 시간에 이루어져 바로 연결되는 IVA와 V 사이에, 이 둘과 행위 시각이 다른 IVB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 IVB가 그 전날 및 두 화자가 만나기 바로 앞 시간까지의 述懷라는 것을 더욱 자명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두 화자가 만난 ‘이른 저녁 시간’과 길 가는 도중에 만난 장소가 작중 현재 시각이고 작중 현장이라고 결론하게 되는 것이다. 두 화자의 대화는 둘이 만난 현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대화 안의 ‘이내 사설’에 IVB가 술회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5. 構想과 文脈

앞의 두 분석으로 〈속미인곡〉의 겉짜임새는 얼추 드러났다. 눈으로 읽는 이 텍스트는 최종적으로 작성 완료된 것이고, 이 텍스트의 짜임은 특정한 의도에 맞게 틀을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작자가 이 틀로 짜게 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추론으로서 그 앞 단계의 짜임, 즉 構想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상은 發想과 일차 완성 단계의 작품 草案을 묶어 일컫는 것이다. 발상은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초안은 문장화된 텍스트임을 뜻한다.

앞의 두 분석 내용을 이용하여 작품 내용에서 ‘이내 사설’ 화자의 하루 일과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天上 白玉京에서의 상황

II②㉠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훤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베로 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훤똥디

IVA①㉠㉠를 ㄱ튼 얼굴이 편훤실 적 몇 날일고 ㉠㉠춘한 고열은 엇디훤야 디내시며 쉼일 동턴은 뒤라서 되섯논고 ㉠㉠죽조반 토석되 네와 ㄱ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줌은 엇디 자시논고

(나) -임의 見斥 받음

II②㉠㉠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생각훤고 니러 안자 헤어훤니 ㉠㉠내 몸의 지은 죄 ㄱ티 빠혀시니 ㉠㉠하늘허라 원망훤며 사름이라 허물허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의 타시로다

(다) -낮의 行爲

IVB①㉠㉠잡거니 밀거니 높픈 뵈희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엇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롤 바라보라

㉠㉠출하리 물ㄱ의 가 비길허나 보라 훤니 ㉠㉠벼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된 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논고 ㉠㉠강턴의 혼자 셔셔 디는 희롤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이 더욱 아득훤 더이고

(라) -귀가 도중의 두 화자 만남

I㉠㉠테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훤 더이고 ㉠㉠턴상 뵈욱경을 엇디훤야 니별훤고 ㉠㉠훤 다 저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II①어와 네어이고 ②㉠이내 스설 드러보오 IVA②㉠㉠님다히 쇼식을 아므려나 아자 훤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머슴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V㉠㉠출하리 쇠어디여 낙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 안훤 번드시 비최리라

V㉠㉠각시님 들어야쿠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마) -귀가 후의 상황

IVB②a)모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⑥반벽 청등은 늘 위하야 볼것
놓고

③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④저근덧 녀진하야 뭇좁을 잠간 드니
⑤정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⑦옥 ㄱ툰 얼구리 반이나마 늘거세라
⑧막읍의 머근 말숨 슬크장 숲자 하니 ⑨눈물이 바라나니 말숨인들 어이
하며 ⑩정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⑪오던된 계성의 좁은 엇디 지
뒸던고

⑫어와 허스로다 이 님이 어더 간고 ⑬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트라보
니 ⑭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이내 사실’ 화자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정리된다. 이 다섯 부분은 작중 현재의 시간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순서에만 따라 단일하게 열거한 것이다.

(가)항 ‘天上 白玉京에서의 상황’을 설정한 것은 I㉠의 ‘턴상 백옥경을 니 별하고’와 IVA①㉡의 ‘님을 뵈셔 이셔’로 미루어 그 내용을 가려내어 한 것이다. 이에는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고 그 임을 ‘지극한 정성’으로 侍從한 정황이 담겨 있다. IVA①㉠a)~d)는 화자의 마음이 백옥경에 있을 그 당시 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일관됨을 암시한다. (나)항은, 임의 見斥을 받아 백옥경을 떠난 후에,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임은 지나친 아양이고 교태라고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에 자책하며 후회하는 내용이다. 이 자책과 후회 속에서도 화자의 변함없는 지극한 임사랑은 (다)·(마)항에서 거듭 확인된다. (다)·(마)·(마)항은 낮·저녁·밤의 시간에 따라 나뉜 것이며, (가)항의 공간 배경은 백옥경 안이고, (나)·(마)항의 공간 배경은 백옥경 밖이다.

이 다섯 항목에서 (마)항을 가리면, 화자의 하루 일과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하루 일과는 (가)·(나)항의 心懷와 (다)·(마)항의 임 소식 알기 行爲로 나뉘는데, 심회는 이 행위에 내재하고 이 행위는 심회가 표출된 것이라는 표리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가)·(나)·(다)·(마) 네 항은 한 화자에 국한된, 유기

적인 맥락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의 유기적 성격은 화자가 알고 싶어 하는, ‘임 소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드러난다. IVA②㉡a) “님다히 소식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의 ‘소식’은 IVA①㉠a)~d)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IVB①㉠b)의 “님다히 소식”도 같은 내용이다. IVA①㉠a)의 “물 ㄱ툰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와 IVB②㉡f)의 “옥 ㄱ툰 얼구리 반이나마 늘거세라”는 내용이 상응되어 ‘옥같이 맑은 얼굴’은 ‘잔잔한 물처럼 편안한 얼굴’과 같은 뜻이며, 임의 안부에 관련된 표현이다. IVA①㉠a)~d)에서 b)~d) 세 가지는 한 해·하루·밤의 시간이 뜻하듯이 언제나 잠시라도 임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빈틈없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지극한 정성을 대변한 것이다. 이 세 내용이 同義反復하여 장황하다 할 정도로 표현된 것은 이것에 관심이 크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이 세 행위의 결과가 a)의 ‘물 ㄱ툰 얼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b)~d) 세 행위는 a)에 수렴되는 세부 행위이며, a)는 세 표현의 상위 개념적 표현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산으로 치닫고 강으로 내닫는 행위(IVB①)나 꿈에서라도 임을 보려는 기대(IVB②)는 임의 안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敷衍的인 표현이다. 또 하나의 敷衍은 V㉡의 ‘落月’이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는 죽어서라도 임의 안부를 알아보리라는 意志의 표현이다.

이로써 이 작품의 發想處는 ‘임의 安否’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구상하여 처음 초안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본 것이 앞에서 작품 내용을 시간순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작품의 완성된 실상과 이 짐작해본 초안 사이의 차이는 앞의 제3절과 제4절의 분석 결과이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또 다시 분석해볼 것은 완성된 작품 문맥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제대로 잘 타고 내려가야 물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IV·V 단락은 앞의 분석들에서 문맥적 성격이 대체로 거론되었으므로 여

기서는 그 앞 단락들을 분석하여 문맥의 흐름을 해명할 실마리를 잡으려고 한다.

I ㉠메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 더이고
II ㉡어와 네여이고

I ㉢희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II ㉣㉠이내 스설 드러보오

I ㉤턴상 백옥경을 었디호야 니별호고
II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훈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 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듯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시고 ㉪누어 생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흐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기 빠혀시니 ㉬하늘허라 원망 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의 타시로다
III 클란 생각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I · II · III 단락은 두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의사소통적 의미의 관계로 다시 정리해본 것을 위에 보였다. I ㉠과 II ㉡은 오랜만에 만난 두 화자의 일상적 인사이라면, I ㉢과 II ㉣㉠, 그리고 I ㉤과 II ㉥과 III은 대응시킬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I ㉢의 ‘누구를 보러 가느냐’는 물음에서 ‘누구’는 상대방의 행동거지를 보고서 짐작한 특별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I · II 단락에서는 그 특별한 인식의 까닭인 상대방의 행동거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 관련 정보는 IVA ㉡(㉦㉡) 님다히 쇼식을 아쁘려나 아자 흐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므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참조하면 I ㉢에서의 표현 ‘누구’는 ‘어디’가 더 무난한 표현인 것 같다. 상대방의 행위 의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묻는 것은 묻는 사람의 주관적인 짐작일 따름이다. 이 주관적 짐작을, 아무 정보 없이

는, 外道라는 의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응대는 그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II ㉣㉠의 ‘내 말(사설) 좀 들어보오.’이다. 이 응대는 그 물음의 내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곧, 응대하는 사람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것인 것이다. 물음의 ‘누구’와 응대의 ‘이내 사설(내용)’이 서로 어긋난 것은 작자의 의도적 설정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의도적 설정에서 ‘누구’에 대한 짐작은 II ㉣㉠과 IVA에 담긴 일편단심에 대한 修辭的論理의 事前裝置로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곧, ‘이내 사설’의 내용과 응대의 태도는 그 일편단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I ㉤에서 물음의 핵심은 백옥경을 떠나게 된 ‘까닭(엇디호야)’이다. 이에 대한 응답이 II ㉥이고, 그 중에 ㉨㉡이 그 직접적인 대답에 해당된다. 이 대답은 주관적인 판단의 대답이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대답이 아니다. 이 대답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모른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에서 백옥경을 떠나게 된 까닭을 자기 탓으로만 여긴다. 입에게서 그 까닭을 찾지 않고 입은 그럴 뜻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은 입에 대한 사랑의 지극함을 암시한다. ㉨에서 견책에 대하여 자신의 숙명으로 결론하는 것은 이 지극한 사랑을 더욱 강조한다. 이 대답의 속마음을 안 상대방은 III의 말로 밖에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위로의 말이 이처럼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옥경을 떠나게 된 까닭을 두 화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분석으로 I · II · III 세 단락의 대화 내용과 그 상관적 의미 관계가 파악되었다. 이에 다시 원래 상태의 문맥을 보면, 단락 I이 작품의 발단 부분인 만큼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I ㉤) 한편으로 이어질 내용에 혼선을 일으키고(I ㉢)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락 II에서는 I의 화자가 묻는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심리상태와,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심정을 포출시킨다. 단락 III의 단순하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위로는 ‘이내

사설' 화자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 오히려 '뻗힌 일'은 IVA①㉗의 '임을 모셨기 때문에 임의 일(관련된 모든 일 및 마음속)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는 주관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 판단은 화자 자신이 임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주관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뻗힌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㉗(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뵈뵈디)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입사랑이 지나쳤던 것이 백옥경을 떠나게 된 까닭이라고 자기 짐작에 따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토로되는 사랑의 심정이 IV단락으로 이어져 확장되고, 임의 소식을 알 수 없는 현실에 대한 V㉗의 悔恨이 다시 토로되자 V㉗의 위로가 이어진다. 이 V㉗의 위로는 작품의 결말 부분이므로 V㉗과 어울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곧, 임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의지를 암시하는 '落月'에 대하여, '긋은비'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깨우쳐주는 실제적인 상황을 담은 표현이다.⁵⁾ '긋은비'는, 장마가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 하도록 흠어매듯이, 현실적 實狀을 받아들이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형상화한 표현인 것이다.⁶⁾

끝으로, 이 문맥의 분석을 마무리하면 이렇다. 구상 및 초안의 짐작해본

5) V㉗의 구절을 '(이내 사설의) 화자를 버린 임에 대한 원망에서 나온 말'(이유진, 2008:153쪽)로 풀이한다면, 화자의 심리와 화자의 작중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자아, 상계-무의식, 하계-의식(같은 책, 159-160쪽)으로 대응시키는 논리는 심리학 분석방법으로 작품을 해부하는 주객전도의 모양새를 보인다. 또 다른 풀이로 "'긋은 비'의 생성작용에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조세형, 2006:248쪽)한다는 '창조적 의미'는 작품 이해를 작품 내용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 것 같다.

6) '긋은비'를 "巫山 行雨와 같은 義의 詩想"(김사엽, 1959:113쪽.)이나, "瀟湘夜雨와 관련(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377-379쪽.)지어 숙고하는 것은 착상의 유래로는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따라서 그 풀이 결과가 아주 달라진다는 점에는 피차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작품을 漢譯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직접적으로 고찰하겠지만, 주목할 점은 그들이 작자가 아니라 독자로서 번역자 및 논평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견해가 옳더라도 후학의 비판적 자세가 없이는 단순한 답습에 그칠 것이다.

상태처럼 시간순서대로 짜였어도 한 편의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루의 일과만을 다룬 단순한 내용, 평범한 문맥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임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 일과가 매일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작품의 여운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변형시켜 완결된 작품은 현재 현장의 대화 속에 과거에 대한 心懷를 담아 혼선을 일으킬 듯한 의도적인 유기적 짜임으로 실감을 더욱 높이는 기법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화자의 대화로 외형의 틀을 삼은 까닭은 〈思美人曲〉처럼 단일한 독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두 화자의 대화에 똑같을 수 없는 두 생각을 대응시켜 한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소통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긴장까지 포함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입체적 효과인 것이다. III이나 V㉗과 같은 상대 화자의 위로는 문맥의 흐름에 변화의 기복을 일게 하거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 작품의 문맥과 내용의 얽어짜임은 그 效果와 아울러 作意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계산된 작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이에 덧붙여 미리 말할 것은, 이 작품의 작의는 문맥에서 핵심 구실을 한 일편담심의 형이상학적 개념인 '(언제 어디서나 當爲的인) 事君以忠'이며, 이 작품은 이를 戀歌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7) 최근의 종합적 고찰로 서영숙(1999:149-174쪽)의 논문이 있는데,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서술방식을 고찰한 이 논문도 기존 연구의 한계인 대화 내용과 문맥의 파악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모와 원망의 정서 사이에서의 갈등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6. 表現의 凝集性 및 二 話者의 性格

‘이내 사설’ 화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자료는 ‘천상 백옥경’(I㉔) 하나이다. 이 글감은, 말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자는 仙人에 해당되지만, 인간계를 비유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옥황상제의 백옥경은 임금의 궁궐이고, 임금이 작중의 임으로 비유된 것임에 ‘이내 사설’의 화자는 벼슬아치이며, 견책은 유배를 뜻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풀이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런데 이 화자가 백옥경에 살았던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다. 어떤 작품에서라도 문맥에서의 偶然은 유기적 짜임을 해친다. 이것이 偶然이 아니라 必然이 되려면, 그 해명 근거는 두 화자의 설정 의도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다른 예를 하나 들면, 같은 화자의 바로 이어지는 물음 I㉔의 “히 다 더 저믄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느고”이다. 이 구절의 ‘놀’에 대하여 앞에서 ‘누구’보다는 ‘어디’가 더 무난한 표현인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의 발상이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임에 주목하면, 이 ‘누구’는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내 사설’의 화자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여 하루 낮을 여기저기 바삐 다녔다. 이 모습이 다른 구절에서는 ‘어디로 가다’(IVA㉔㉕)어드러로 가랏 말고)로 표현되어 있다. 이 “놀을 보라 가시느고”라는 물음은 상대방이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는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짐작한 말이라는 점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놀을 보라’를 外道의 의심을 담은 표현으로 곡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되면, 이 작품이 유기적 짜임새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 ‘놀을 보라(누구를 만나려고)’는 두 화자가 같은 한 사람이라면 한 뜻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정확한 낱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 허둥지둥 바삐 가면서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자문자답을 두 自我의 대화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

로 해명되어야 알맞다는 것이다. 그래야 통일된 유기적 짜임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두 화자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된다. 이는 두 화자가 한 사람의 분리된 두 자아라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내 사설’의 화자는 歸家中이지만, 상대 화자가 길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후자의 경우는 그 정보가 없으므로 偶然한 설정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두 自我의 分離를 적용하면 설정 정보가 없는 화자의 출현은 무난히 풀이된다. 이 표현들에서 ‘한 사람의 분리된 두 자아’라는 의미를 형성하는 응집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III의 “글란 싱각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는 앞의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맥에서의 앞뒤 호응관계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두 자아의 대화로 풀이된다. III의 위로하는 말 대신에 스스로 마음을 삭이거나 잊어버리거나 체념하라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뒤 IVA의 내용과 조화롭게 연결될 수 없다. ‘땃힌 일’이란 말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내 사설’의 화자가 임에게서 見斥받은 까닭을 상대 화자도 모른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함축적인 표현이며, IVA의 내용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IVA㉑의 “남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에는 그 견책의 까닭을 알 수 없어 애타는 속마음을 숨겨 담은 표현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心相이 V㉑의 ‘긋은비’로 비유된 것이다.

이 ‘긋은 비’가 담긴 V㉑의 위로는 V㉑의 ‘죽어 낙월이 되어’에 대한 판단을 담은 말이다. 임의 안부를 죽은 녀므로라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을 ‘落月’로 표현한 것에 대하여 혼자 삭일 수밖에 없다는 同情의 뜻을 ‘긋은비’로 표현한 것이다. 이 동정은 임의 소식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이 판단은 見斥에 근거하며, 견책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임의 소식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IVA㉒)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위로의 말은

각각 문맥에서 상대 화자의 사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이룬다. 게다가 이 대화에서의 敬語 사용을 同情心으로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는 효과를 노린 장치라고 풀이하면, 이 경어 표현은 심한 갈등을 겪는 한 사람의 두 마음(자아)를 훌륭하게 객관화시킨 형상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 대응들은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 양상을 두 자아로 분리시켜 마치 두 화자를 객관적인 존재처럼 錯亂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의도적인 엮어짜기 기법은 문맥에서 밀접한 호응관계를 유지시키는 응집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문맥의 응집성은 표현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화자가 알고 싶어 하는 임의 소식인 임의 근황 네 가지(IVA①㉔)는 侍從이 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일은 임(임금)의 사회적 활동(國政)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임이 집(內殿)에 있을 때 그의 心身の 安息을 위한 일이다. 따라서 이 일에는 임금을 해칠 나쁜 마음이 없다면 진심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할 것이 틀림없다. 이 지극한 정성이 견책을 받은 후에도 임금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다. 이 정성과 마음에는 ‘굳땃’(II②㉔㉕)이 없다. 그렇다면 견책 받은 까닭이 없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후헝가마는”(II②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II②㉔㉕)에서 사랑(君恩)을 받은 까닭도 알 수 없다. 화자가 그 까닭들을 알 수 없음은 진심에서 우러난 지극한 정성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조물의 탓’(II②㉔)이란 판단이 이것을 직접 가리킨다. 타고난 천성대로 하였다는 뜻이다. 곧, 이 ‘사설’의 내용은 순수한 사랑, 곧 충직한 事君以忠의 표방으로 일관된다. IVB②㉔의 “므음의 머근 말슴”은, 겉으로 안부를 여쭙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사군이충의 정성을 다 바치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이 마음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긋은비’로 죽음을 스스로 거부한 까닭은 사군이충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긋은비’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 임의 시중을 들 수 있을

때까지) 객관적 현실상을 참아 이겨내어야 하는 고통을 승화시킨 표현이다. 이 표현은 지극한 임사랑, 사군이충의 실현을 지향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화자의 심리적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에서 응집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례는 단락 IVB②이다.

- ㉔모침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㉕반벽 청등은 늘 위허야 불갓는고
- ㉖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㉗저근덧 녀진허야 풋증을 잠간 드니
- ㉘정성이 지극허야 쉼의 님을 보니 ㉙우 ㉚튼 45얼구리 반이나마 늘거 세라
- ㉛므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솟자 하니 ㉜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 흐며 ㉝정을 못 다허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 ㉞오던뉘 계성의 좁은 엇디 썩듯던고 ㉟어와 허스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 ㊱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㊲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쏘이로다

㉔의 ‘찬 자리’는 독수공방과 같은 혼자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㉕의 ‘半壁 靑燈’도 등불이 방 전체를 비추지 못하고 한 쪽만 비추는 뜻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여 또한 혼자인 상태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늘 위하여 밝았는고’ 또한 일할 때 필요한 불빛의 효능에 관한 표현으로 ‘해야 할 일이 없으므로 불빛은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곧, ‘임을 모시고서 임에게 시중드는,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태’를 함축한 표현이다. 이 표현들 모두는 겉으로는 임 없는 독수공방 상태를 묘사하는 관습적인 표현꼴과 같지만,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곧, 이 표현들로 형상화하려고 한 것은 독수공방의 외로움이 아니라 삶에 대한 意慾이 弱화된 心相인 것이다.

㉞는 이 단락 안에서 단락 IVB①의 낮의 행위를 다시 구현시켜 이 단락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실을 하고, 이로써 ㉟의 ‘풋잠’과 ㉙의 ‘정성’을 끌어내

는 실마리 구실을 한다. 그리고 ㉔의 ‘뚝잠’은 낮의 행위가 심신에 힘겨운 일과였음을 ‘저근덕’과 아울러 암시하면서, 여전히 임의 소식 알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마음 상태, 곧 잠자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몰두한 상태를 암시한다. 이에 ‘力盡’이 (뚝)잠을 이끌어내고, 잠은 ‘임의 얼굴’을 보는 꿈을 이끌어낸다. ‘임의 거의 늙은 얼굴’은 ‘물 같은’ ‘육 같은’ 얼굴이 아니므로 눈물이 솟아나고(㉕) 목이 메는(㉖) 까닭인데, 이는 임의 심신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한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가 아닌 꿈속 현상이지만,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표출이다. 이 염려는 자신이 시중드는 일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짐작일 뿐이다. 화자가 잠깨어 깨닫는 현실적 실제 상황은 ‘그림자’로 제시된다. 이 그림자는 화자 자신의 그림자이며, 화자 혼자라는 현실적 실제에 대한 自覺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림자’에는 꿈이 비현실적 주관적 虛想이며, 자신이 바라는 임 소식 알기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넓이를 가진다.⁸⁾

이 ‘그림자’는 V㉗의 ‘落月’을 이끌어내는 구실도 하는데, 단락 IVB와 V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문맥적 연결이 되지 않는 단락들이다. IVB㉘의 ‘그림자’와 V㉗의 ‘낙월’ 사이에는 심리적 聯想作用이 개입되어 있다. 이 연상 작용으로 서로 연속되지 않는 시간에서의 각각의 두 행위가 마치 문맥의 인과적 관계로 연속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엮어짜기 작법의 표면 다듬기 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IVA㉙의 “어드러로 가쟈 말고”와 IVB㉚(임 소식을 전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낮 동안의 모습)의 사이에서도 각각의 시간에 한 행위들인데도 연속되는 순차적 행위처럼 착각할 수 있게 자리를 이어 놓은 것 또한 마찬가지로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끝으로, 표현 방법에 관련하여 언급하면 이렇다. 이 작품이 대화 방식을 큰 틀로 하면서 혼잣말 형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思美人曲〉의 연속 작품으로서 마찬가지로 개인 서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그 큰 까닭인 것 같다. 그런데 “이내 스설 드러보오”에서 풍기듯이 하소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사설’의 혼잣말 어투가 상대 화자와 대화하는 일상적인 어투가 아니라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두 화자의 대화와 그 표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두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 ‘사설’의 독백에 내재된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어투의 부조화는 작품 전체의 조화로움에 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하고 설명한 것처럼 이 작품은 유기적 엮어짜기 작법으로 작품 내용을 짚기 때문에 읽기 간명하고 쉬운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문맥의 흐름 속에 표현들의 의미들을 일정하고 일관되게 연결시키는 응집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응집성은 모든 글이 갖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유기성이라는 것은 이 응집성의 복합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7. 맺음말

모든 글은 凝集力 있는 有機的인 짜임을 목표로 한다. 이 짜임은 글감들이 정검다리 놓이듯 제자리에 알맞게 제대로 놓이는 꼴(의미를 유기적으로 엮어짜는 형식)의 틀이다. 이 꼴과 틀은 글감들이 作意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형상화의 밑바탕이며 형상화 결과의 꼴과 틀이다. 효과적인 형상화는 글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고리 구실을 조화롭게 하여 마치 정해진 진

8) ‘그림자’를 화자(乙女)의 分身, 동반자, 고독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이 작품 내용의 핵심을 임의 소식 알기가 아니라 戀慕想思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최태호, 같은 책, 231-232쪽.)

행로를 따라가듯이 부분 의미들의 흐름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의를 생성해내는 과정과 결과이다. 이 과정에는 논리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논리적 사고가 글감들이 알맞게 제자리에 놓이게 하고, 부분 내용들이 서로 잇대며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설계도 구실을 한다. 이것이 한 편의 작품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作法이고, 그 작품을 제대로 觀賞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로 〈속미인곡〉은 이러한 꼴과 틀의 작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결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임기중, 『歷代歌辭文學全集』 제2권, 아세아문화사, 1987. 581-584쪽.
김사엽, 『註解·解題 松江歌辭』, 문호사, 1959.
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서영숙, 「〈속미인곡〉의 서술방식과 의미」, 『한어문교육』 제7집, 149-174쪽.
조세형, 「가사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 그 반성과 전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2006. 235-263쪽.
이유진, 「〈사미인곡〉·〈속미인곡〉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문학치료연구』 제7집, 2008. 145-168쪽.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A study for 'Sokmiingok' true character

Yang, Hee-chan

Jeongcheol's 'Sokmiingok' is a love song that is based on innate and extremely devoted a loyalty to a king. In this work, the main context and writing motive is the worrying heart of speaker who want to get a news from her lover(the 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sthetic cohesion of context, through arranging the content of work by time order,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expression. Every act of this work has been done in the past time except this ond day schedule. It i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structure of this work. The concrete and practical description is the figuring technique that generate speaker's innermost feelings effectively. Expressions are accorded with writing purpose and an idea consistently. And cohesion of the context can be showed from continual enumeration of acts that is in the flowing time.

At the end, two speakers are figured by two heart of one man. Main speaker is the one who speaks innermost feelings. The other speaker play a role that does main speaker's 'speech' and show real situation of main speaker in the last part.

Key words : Sokmiingok, Sagunichung, a love song, context, idea, writing purpose, present, scene, character of speaker, cohesion.